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국회 통과

중소상인 '환영' 대기업 유통업체 '난색'

"현법개정 막기엔 역부족...추가적 지원책 뒤따라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지역 중소상인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추가적인 지원책 등이 뒷받침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하 '유통법')과 함께 'SSM 규제 쌍동이 법'으로 불려왔던 '상생법'이 25일 통과돼 중소상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SSM 가맹사업 추진에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상생법'은 SSM 가맹점마다 하더라도 대기업 지분이 51% 이상일 경우 사업조정 신청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변의 소상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개점을 미루거나 영업을 종단한 뒤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공동대표 김경배·최극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상생법과 유통법 통과는 전국 260만 소상공인들이 6년 동안 소망해 왔던 일"이라며 "늦었지만 무차별적으로 SSM이 진출하는 것을 규제할 근거가 마련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의지

를 갖고 시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생법'이 통과 됐지만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롯데쇼핑의 SSM이 롯데슈퍼는 점주가 직접 출자해 점포를 내는 '완전 가맹' 형태로 '상생법'으로 인한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데 다른 대기업 유통업체들도 SSM 개점이 소요되는 비용(임차비용, 공사비 등) 가운데 자사(본사)의 부담금을 50.99%로 조정할 경우 가맹점 SSM으로 규정받지 않게 되는 협정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집행위원장 김용재)는 "상동이 법안"만으로는 대기업 유통업체

체들의 편법 개점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유통법"의 경우 3년만 유효한 일몰법인데다 1500여 개 전통시장 중 300여개 등록시장만 500m 내점점 제한의 보호를 받을 것을 뛰어넘어 '상생법'은 완전가맹점의 경우 사업조정을 피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범안들의 제개정을 위한 정책적인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조정대상 확대민으로 대기업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을 수 없다"며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 만이 SSM을 근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친환경 그린카 모두 모였어요"**

25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국제 그린카·로봇 전시회'에서 강운태 광주시장 등이 전시 차량을 둘러보고 있다. 최첨단 자동차·전자 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28일까지 나흘간 열리며, 미국·일본·유럽 등 7개국 140개 업체가 380개 부스 규모의 국내 최초 그린카 전문 전시회다. 현대자동차·지앤디원텍 등이 참가해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차·수소연료전지차 등을 선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하나금융, 외환銀 4조6888억원에 인수

론스타와 주식매매계약 체결

하나금융지주가 4조6888억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한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의 총자산은 316조원으로 늘어나 신한금융지주(310조원)를 제치고 국내에서 자산규모 3위의 금융지주회사가 된다.

김종열 하나금융 사장을 25일 오후 서울을 지나 전시회장에서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3억 2904만2672주)를 주당 약 1만4250원, 총 4조6888억원에 사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계약이 진행될 당시 외환은행 주가 1만3000원 안팎에 경영권 프리미엄 10%(1300원)를 합친 금액이다.

김승우 하나금융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존 그레이언 론스타 회장과 이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내주 중에 금융위원회에 외환은행 지분 인수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내년 3월 말 이전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했지만 금융위의 승인 결정이 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해 인수작업을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자금을 자회사 배당과 지주회사 회사채 발행, 전략적 투자자나 재무적 투자자 유치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김 사장은 "석 달 후에 자금 조달을 완료하겠다"면서 "다면 기존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은 없도록 하고 감독당국에서 강조하는 최소한의 재무비율도 지키면서 조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에 따라 우리금융지주[053000] 인수전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닭·오리고기·계란
포장유통 의무화

내년부터는 닭·오리고기와 계란은 반드시 포장해 유통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포장유통 의무가 2011년 1월부터는 닭·오리 전체 도축업자와 보관·운반·판매업자에게까지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위생관리상 통제 없이 유통판매된 식용란(계란)도 2011년 4월부터는 유통기한을 표시한 뒤 포장·유통해야 한다. /연합뉴스

백화점 오늘부터 올 마지막 정기세일

내달 5일까지...브랜드 70% 참여 최대 40% 할인

광주지역 백화점들이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겨울 정기세일 행사를 실시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 롯데, 현대 등 지역 백화점들은 다음 달 5일까지 열흘 동안 입점 브랜드의 70% 가량이 참여하는 가운데 겨울 상품을 10~40% 할인 판매하는 정기세일 행사를 벌인다.

올해는 지난 19일 시작한 해외명품

시즌오프 행사와 겹쳐 명품 겨울 신상품을 할인 구입할 수 있다는 점과 백화점별로 마련한 겨울 외투나 스포츠

겨울용 의류와 방한용품을 대거 선보인다.

또 28일까지 당일 롯데카드 50만원 이상 구매시 6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진행하며 1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응모권 추첨을 통해 순박 골드카드도 증정한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코트, 재킷, 점퍼 등을 찾는 고객이 늘고 있어 겨울 의류 등 방한용 상품 블랑을 30% 이상 확대했다"며 "이번 세일기간을 활용하면 코트, 재킷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지역민들 "향후 경기 나아질 것"

광주·전남 소비자심리지수 기준치 웃돌아

광주·전남 소비자들은 앞으로 가계수입이 늘어 생활형편이 나아지는 등 비교적 경기전망을 낙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광주·전남지역 373가구를 대상으로 '2010년 11월 소비자동향 조사'를 벌인 결과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달보다 3포인트 상승한 111로 기준치(100)

를 크게 웃돌며 전국과 대체로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냈다.

6개월 전과 비교한 11월 현재생활형편CSI(소비자동향지수)는 96으로 전달보다 5포인트 상승했고 6개월 후의 생활형편을 나타내는 전망CSI는 102로 전달보다 3포인트 올랐다.

현재경기판단CSI(89→94)와 향후경기전망CSI(98→102)는 각각 5포인트 상승했다.

인트와 4포인트 상승했으나.

또 6개월 후의 가계지출을 예상하는 소비지출CSI는 112로 전월과 동일했으며 의료보건비, 교통통신비, 교육비, 의류비 지출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취업기회전망CSI는 96으로 지난 8월 104를 기록한 이후 9월 98, 10월 96 등 3개월 연속 기준치를 밟아왔다.

또 6개월 후의 물가수준전망CSI(138→140) 및 금리수준전망CSI(118→120)는 각각 전달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전남 지역경제 '회복세' 유지

최근 광주·전남지역 경제가 제조업 생산이 감소로 전환됐지만 소비 개선과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2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최근의 광주·전남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9월 중 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의 부진과 추석명절에 따른 조업일수 축소 등으로 전달의 13.9% 증가에서 5.1% 감소했다.

지역별로 광주에서 전자부품(-2.1%

0%), 자동차(-1.7%) 등의 생산 감소로 증가폭이 전년도 54.1%에서 3.1%로 크게 축소됐고 전남에서는 기타기계장비(-81.4%), 1차금속(-3.7%) 등의 부진으로 감소(-8.9%) 했다.

10월 제조업 업황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전달 93에서 94로 1포인트 상승했다.

9월 중 백화점 등 대형 소매점의 판매는 전달(5.5%)에 이어 증가세(8.2%

7%)를 이어갔고 10월 소비자심리지수도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웃도는 108를 기록했다.

또 10월 중 수출은 광주의 자동차(22.4%), 가전제품(31%) 등과 전남의 철강제품(34.0%), 석유제품(17.0%) 등의 증가에 힘입어 23.0%의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9월 중 건설활동은 건축착공면적이 감소(-19.5%)로 전환됐고

허가면적도 감소(-6.6%)를 보이며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으며 10월 중 고용도 비농립어업 취업자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2만2600명이 줄어드는 등 전달(-2만6000명)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오름폭이 확대 됐고, 주택매매가격 상승폭은 다소 축소 됐다. 기업자금사정은 어음부도율을 소폭 상승과 부도업체수가 증가해 다소 악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특허번호 제 10-0488090호 실용신안등록 제 20-0374637호 실용신안등록 제 20-0355402호 실용신안등록 제 20-0333037호

콩가득 깊어지는
간식 아시는
전두부

가맹점 모집

웰빙 명품
전(全)두부

★점포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희소식!
전두부 자동 제조기 하나면 OK!

*** 콩 관련 업종(기존식당) 재창업 및 업종 변경**

전(全)두부란? 기존 두부와 전혀 다른 풍의 고소한 맛과 푸드처럼 부드러우며 이미 선진국에서 장수음식으로 즐겨 먹고 있는 두부입니다.

전두부의 영양 – 전두부와 일반두부의 주요 성분 비교(100g당 함량)

전 두 부 : 약 3400mg(약 11g)	식이섬유	콜라겐스테롤의 흡수를 막아주므로 성인병 예방, 변비개선 및 다이어트 효과
일반두부 : 약 300mg		
전 두 부 : 약 27.63mg(약 270mg)	사포닌	대부의 사포닌은 콜라겐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여 혈증콜라겐스테롤을 저하시켜 심장병, 담석증 예방에 효과
일반두부 : 약 0.1mg		
전 두 부 : 약 29.95mg(약 308mg)	레시틴	대부에 많이 들어 있는 카페인의 일정으로 암,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 우울증, 불규칙증 등의 예방에 효과
일반두부 : 대량		
전 두 부 : 약 29.17mg(약 308mg)	이소플라본	식물의 배고에서 분리한 풍수 지방질이 성분은 노력을 강화하게 만들어주며 치매 예방에 효과적임
일반두부 : 약 9.3mg		

*** 100% 국내산 콩만을 고집하는 명품 두부**
기능성 두부(녹차두부, 카레두부, 흑두부, 쑥두부)

*** 최고 상권 다향 확보 보유, 적은 형별 ~ 큰 형별 운영 가능**

오픈 가능 지역 광주·전남·충주·목포·여수·전주·익산·군산

광주·전남 체인본부 NAVER 대양하이텍

최소 창업 제조공장이 간단하여 본사의 적극 지원 창업 용이

소지본 창업 기관비, 로열티가 없다. 창업자금(소상공인, 리스) 지원 운영, 흥보 등 본사 적극 지원

고수익 창업 점포 선정부터 완벽 노하우 전수, 메뉴기능성 다양으로 인한 고수익, 본사 적극 지원

상담 문의 ☎ 062)383-0029, 080-335-0202 (평일 9:00~17:00)
※ 위치: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센터 후문 옆

※ 매주 토요일 PM 1:00~ 시식 가능합니다.

명품시계 전남/북 총판

A/S는 유명백화점 갤러리어클락 매장과 공유됩니다.

GALLERY O'CLOCK

• CITIZEN • TechnoMarine GENEVE • FENDI • TIMEX • Salvatore Ferragamo TIMEPIECES • BOSS HUGO BOSS • D&G